

## 2006년도 종계 · 부화업 전망

닭의 해인 2005년에 양계인들은 양계업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컸었다. 다행히 2003년에 발병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2005년 상반기까지 닭고기 수입제한과 생산감축으로 양계 산물가격은 장기간 사상 초유의 고가행진을 계속하여 양계산업이 가격 면에서는 안정화 되는 듯했다.

하지만 원종계 3사의 쿼터제 약속은 파기되었고, 종계의 분양수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2년보다 더 많이 분양되었으며, 경제주령이 지난 노계는 도태되지 않고 연장생산과 환우로 이어져 병아리의 품질저하와 생산과잉의 원천이 되는 부작용이 그대로 표출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10월초부터는 국·내외적으로 철새의 이동시기와 맞물려 동남아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하여 인간과의 교차감염 가능성이 제기되어 WHO가



이 상 배 이사  
(주)삼화육종

대량 사망 가능성까지 발표하는 바람에 닭고기 소비는 참담한 상황에 놓였다. 호황 때 조성된 생산과잉 요인까지 겹쳐서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라는 우리업의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기라도 하듯 2005년 9월부터 닭 값과 병아리 값은 바닥을 향하여 치닫기 시작했다.

이도 잠시 과잉에 대한 경기불안감으로 7월 이후부터 몇 개월에 걸친 상당수 노계도태, 조류인플루엔자 과잉보도 자제와 함께 언론에서 닭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보도로 가격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 한 해 아니 최근 몇 개월 이내에 극과 극의 호황과 불황, 불황과 호황이 뒤바뀌는 것을 경험했을 때 필자는 육계산업의 불안정한 모습을 또다시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새해 2006년에는 좀더 안정되고 건설해지는 육계산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여 올해의 육계경기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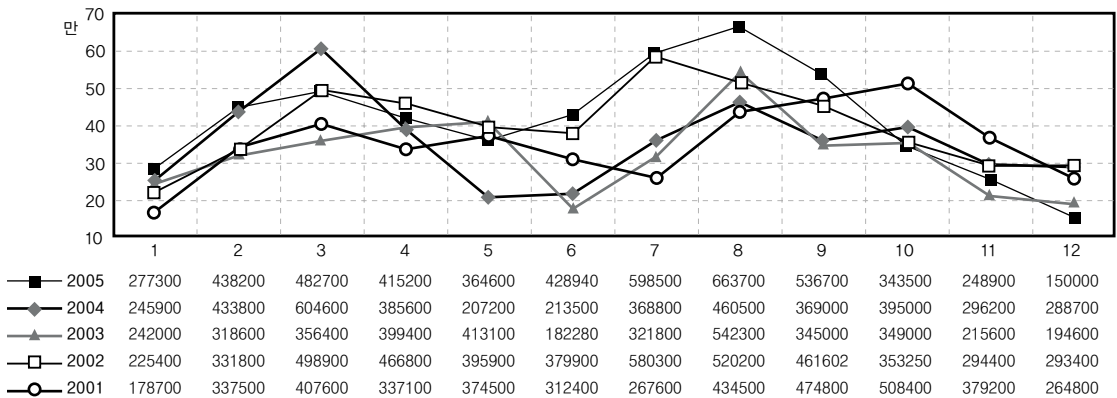
# 01

## 1. 통계로 본 2005년도 병아리 생산 잠재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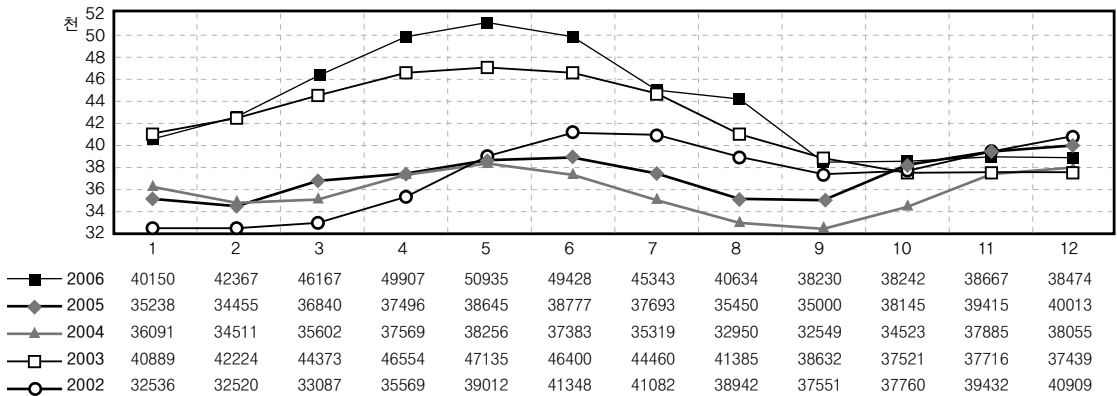
2005년의 종계 입식량은 상반기 보다 하반기에 집중되었는데, 특히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의 물량이 준용계를 포함하면 220만수가 넘어서는 엄청난 물량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종계

입식량이 많았다. 2002년도에 전체 종계 입식량이 분양기준 480만수를 상회하여 2003년에 바로 불황으로 이어졌는데 공교롭게도 2005년에는 500만수대에 접근하게 되어 2006년도 육

〈표 1〉 지난 5년간 종계분양현황



〈표 2〉 실용계 병아리 생산잠재량 추정



용종계 생산 사육 수준은 과잉생산 여지를 안고 있어 불안한 전망을 할 수 있다. 실용계 생산잠재력상으로 볼 때 상반기에는 생산량 과잉이 2003년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을 <표 2>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또한 하반기의 병아리 생산 잠재량도 금년도 상반기까지 분양되는 종계의 분양수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평년수준에 준하는 종계수수가 분양되더라도 2005년도의 과잉 분양된 종계가 연장생산 내지는 환우가 될 경우 연말까지 과잉생산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 2. 경기(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

### 1) 부정적 변수

#### (1) 닭고기 수입

브라질산과 미국산 닭고기는 국내의 닭 값에 따라서 언제든지 많은 물량이 수입될 수 있는 여건이므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문제로 수입이 제한되었던 전의 수준으로 돌아갈 경우 가격의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다.

다행히 태국과 중국에서 계속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 걱정은 한시를 놓았다 하더라도 미국산의

입김이 매우 세기 때문에 항상 위협은 도사리고 있으며, FTA협상이 계속 확대되므로 더더욱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입장이다.

#### (2) 조류인플루엔자

2005년 하반기에는 발병하지도 않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 보도로 엄청난 닭고기 소비의 위축을 가져왔다.

하지만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은 언제든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국내에서 2003년말과 같이 발생이라도 한다면 소비위축으로 인한 가격폭락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는 겨울철로 접어드는 10월 이후가 되면 조류인플루엔자 발병가능성 보도로 해마다 닭 값이 폭락하는 현상이 재현될 것을 우리 업계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 (3) 과잉 분양된 종계수수

상기에서 언급했듯이 2005년 육계업 유사 이래 가장 많은 종계가 분양되었다. 단지 일시적인 병아리 부족현상으로 현재 고가로 형성되는 병아리 가격은 작년 6월 이후 분양된 종계에서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2월 이후에는 증가가 계속될 여건이므로 소비증가가 없는 한 경기불안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2006년도 종계·부화업 전망

## (4) 파기된 원종계 쿼터제

쿼터제 파기로 2005년부터 원종계의 수입수 수 증가가 계속 불황의 씨앗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불신으로 인한 어떤 합의도출도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업계전반의 시각이다. 이는 종계 생산량 감축, 실용계 분양 감축 등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2) 긍정적 변수

## (1) 불황에 대한 업계 스스로의 감축노력

경기 흐름은 불황을 진단하게 되면 예상보다 빠르게 진정되는 측면도 있다.

대비에 적극적일 경우 장기 불황은 기간이 단축되게 된다. 그러나 일시에 종계나 실용계를 인위적으로 도태하지 않는 한 상반기 동안 과잉생산은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므로 의무자조금의 적절한 활용을 통한 소비확대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 경기회복에 대한 소비 증가 기대

신행정도시 및 혁신, 기업형 도시 개발로 보상금이 지급되어 이웃 지역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고, 부동산에 몰려있던 투자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밀려들어와 주가가 활황세를 타면 몇

개월 후부터는 실물경기가 회복된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진단대로 경기가 움직인다면 닭고기 소비 역시 어느 정도는 탄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흐름을 인위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는 실용계 생산잠재력을 감안하면 2006년도 상반기 육계 사육수수는 과잉생산이 예상되므로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업계에 종사하는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노력 여하에 따라 육계업 경기는 여건이 바뀐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하반기부터는 느끼게나마 불황의 터널에서 점차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된다.

문제는 업계 종사자들의 육계산업 안정화에 쏟는 관심사이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한탕주의, 무관심주의가 팽배해진다면 불황은 연속해서 악순환 될 수도 있다. 흘러가는 대로 방치하기 보다 육계업 관련인들이 불황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닭고기가 가장 각광받는 웰빙식품, 가장 사랑받는 육류중의 하나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